

# 韓末 開化意識의 擴大展開

金 雲 泰

여기서 朝鮮朝가 開港後 華夷의 國際秩序로 부터 탈피하고 종래의 東洋的인 事大交隣의 外交形式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多邊의 列國과의 國際關係에 들어 감에 따라 外勢의 침투와 傳統秩序의 붕괴에 의한 위기의식이 깊어가면서 한편 西洋技術의 섭취 이용에 의한 開化意識이 확대되고 그것은 東道西器論에 의한 自強意識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積極的採西思想으로 成長하여 西歐의 世界觀을 승인하게 되는 開化意識의 擴大的展開에 관하여 論하고자 한다.

開港 이후 특히 1880년대의 初期開化運動은 비록 그것이 소수의 開化派官人 엘리트에 의하여 주도되고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開化에 대한 國民의 意識成長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초기 개화정책을 비판하고 반항하는 운동으로써 辛巳 衛正斥邪思想 중에서도 단순한 華夷의 斥邪에 집착한 固陋한 이론을 제외하고는 점차로 採西를 긍정하는 사상이 활발하게 대두하였음이 주목된다. 즉, 斥邪思想의 基盤 위에서도 採西意識이 대두하였고, 또 道(體)와 器(用)를 구별함으로써 소위 東道西器論에 의한 自主意識이 강조되었다.<sup>(1)</sup>

적어도 道와 器를 구별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排他는 단순한 斥洋만이 아니고 오히려 採西로 發展하기 위한 전제적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의 西器에 대한 利用厚生說은 서양의 技術과 產物을 긍정하고 들어가는 採西의 기초적 단계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高宗 16년경에 權鍾祿上疏<sup>(2)</sup>, 金斗淵上疏<sup>(3)</sup> 등에서 나타났던 개항반대론은 盲目的 斥洋이나 華夷의 斥邪가 아니고 開港通容으로 인한 經濟的 武力的 威脅앞에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民族의 自存意識이었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후일 採西를 기반으로한 적극적 자강의식으로 成長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高宗 17년 소위 黃遵憲의 「朝鮮策略」의 國內紹介를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衛正斥邪意識의 再燃도 단순한 華夷意識이나 斥洋意識의 반동적 강화만은 아니었다.

한편 辛巳(1881) 衛正斥邪를 중심으로 개화반대의 烽起가 전국에 고조되어 政治的 危機에

(1) '東道西器'란 用語에 관하여 韓祐勛,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 「韓國史研究」Ⅱ 韓國史研究會 1968. pp. 130-134 참조.

(2) 「日省錄」, 高宗 16년, 1월 24일 條(66) 「倭國物貨는 無用之物임으로 그들 強要로 開港通商하던 우리에게 減貨의 危機를 초래한다」고 하였고.

(3) 「日省錄」 高宗 16년, 5월 15일 條(33) 「元山開港은 南北產物의 阻絶을 초래한다」고 反對하였다.

부딪치게 되었던 시기에 前司憲府掌令 郭基洛는 儒生들의 斥邪運動을 철저히 탄압하고 開化政策을 실시할 것을 王에게 상소하였다. 그는 요즈음 各道 儒生들이 衛正斥邪라는 명목으로 여론이 비등하여 마치 일국이 西學에 빠지고 양복을 입게 되리라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렇지 않으며, 일본과의 修交와 斥洋과는 스스로 별개의 문제로서 修交하면서도 斥洋政策은 堅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士林에게서는 기대하기 힘든 倭洋分離論으로서 당시 개화정책(匪洋伊修論)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朝鮮策略」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긴요한 敵情에 대한 책략이기 때문에 만약에 金弘集이 그 冊子를 日本에서 받아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罪는 도리어 더 컸을 것이라 하고 그 취사선택은 政府가 自主的으로 대처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또 일본과의 修交는 古來의 수호관계와 天下通商의 현정세에 비추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4)</sup>

이와 같은 進步的인 採西思想은 1882年 3月 韓·美修好通商條約을 통하여 列國通商이 체제화되어 감에 따라 점차 儒生들 사이에 확대되어 갔다. 여기서 서양의 教는 멀리하되 그 기술은 이용해야 할 것을 제언하는 採西에 대한 부분적인 肯定的 意識의 확대를 엿볼 수 있다.<sup>(5)</sup>

그리고 이와 같이 西歐的 技法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마련된 부분적인 採西意識은 점차발전하여 西歐秩序에 참여 경쟁하기 위한 적극적인 參西意識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것은 당시의 世界大勢에 대한관찰과 萬國公法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당시의 世界史潮流의 주역이 서구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서구적 질서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개화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1880년대 朝廷의 開化政策과 병행하여 나타났던 開化意識의 成長過程을 그 시간적 變遷을 중심으로 圖式化하여 보면 다음과같이 나타난다. 그것은 대략 高宗 17年(1880)의 官人 엘리트에 의한 개화정책의 실천에서 출발하여 1881년의 辛巳衛正斥邪와 부분적인 採西思想을 거쳐 1882년의 적극적 採西意識으로 이행되기 까지에 시간적 分析을 意味하는 것이다.

表 1을 分析해볼때, 당시 官人엘리트들에 의하여 추진된 개화정책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 의식의 방향은 대략 초기의 斥邪에서 중기의 部分的 採西로(東道西器) 그리고 그것은 다시 후기의 全般的 採西(參西)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西歐觀의 肯定的 확립에서 점차로 西歐世界秩序에 참여 경쟁하기 위한 積極的 採西自強參西思想으로 발전한 것이다. 즉, 1882년 후반부터 두르익기 시작한 採西意識의 확대는 드디어 西歐的 世界秩序를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은 採西價値의 幅(scale)을 더욱 확대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採西價値의 확대와 함께 그러한 世界秩序에 적극적으

(4) “...不友하면서 勉從하기보다는 차라리 順就하여 그들과 단결하는 것이 낫다……그 사람으로 해서 그 良法까지 아울러 물리쳐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5)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12월 4일條

〈表 1〉

年 月 日	上 疏 者	內 容	手 段	價 值 觀	備 考
高宗 17년 10월 11일	兵曹正郎 劉 元 植	西洋 { 技...奇巧 學...淫邪 朝鮮策略...染邪·侮賢	邪教排斥 書院復設	衛正斥邪	斥邪의 反動的 強化
高宗 17년 12월 17일	前 正 言 許 元 杓	仁川開港 反對 朝鮮策略 反對	本固寧邦의 道는 國王의 善政에서	衛正斥邪 (自強理論)	斥邪理論의 現實 化
高宗 17년 12월 28일	掌 令 李 駿 善	軍器學造 反對 仁川開港 反對	自守保存	衛正斥邪	經濟的 自存
高宗 18년 2월 26일	嶺南萬人疏 (疏頭李晚孫)	開化外交 反對	儒學強化 (崇儒重道)	衛正斥邪	華夷論과 結合 된 宗教的 動員
高宗 18년 3월 22일	武科及第 洪 時 中	開化修交反對 { 開港=倭의 制約 開化=墮落	制限通商 洋化嚴禁	衛正斥邪 (倭洋一體)	通商制限
高宗 18년 3월 22일	出 身 黃 載 顯	開化政策에 懷疑, 中 原秩序崩壞에 대한 不安	國內政治의 刷新	衛正斥邪 (自強理論)	同年 五月의 金淳 鎮(慶尙) 柳翼永 (京畿) 韓洪烈(忠 清)도 斥邪에 속 한다.
高宗 18년 6월 18일	前 掌 令 郭 基 洛	倭·洋分離 修交自強認定 西技採擇主張	技術導入 產業強化	衛正·採西	西歐에 대한 部分 的 承認
高宗 18년 閏7월 8일	江原儒生 萬 言 疏 洪 在 鶴	開化政策=主和賣國 邪說氾濫=宗社危機	邪說排斥賣國臣僚 處刑	衛正斥邪 (倭洋一體)	開化政策에 대한 政治單位間的 關 爭
高宗 18년 閏7월 8일	京畿儒生 申 樓	(萬人疏을 호 開化派糾 彈) 開化政策 } 排斥 主和臣僚	斥邪政策強化	衛正斥邪 (倭洋一體)	同月의 趙啓夏(忠清) 高 定柱(全羅)도 斥 邪에 속한다
高宗 18년 8월 8일	副 護 軍 趙 秉 友	倭勢排斥 斥攘·內修主張	內修強化	衛正斥邪 (倭洋一體)	
高宗 18년 11월 30일	草 莽 臣 宋 秉 璿	斥倭和=絕邪教 開化(策略·衙門)反對	開化政策의 中止, 反省	衛正斥邪 (倭洋一體)	
高宗 19년 7월 25일	忠州幼學 金 益 龍	崇正學·關異端 武備強化	軍備強化	衛正斥邪	
高宗 19년 9월 3일	禮曹佐郎 李 斗 永	西歐技術(農兵)의 優 勢를 認定	西歐技術의 採擇	採西·衛正 (東道西器)	西歐技術承認
高宗 19년 9월 5일	刑曹佐郎 康 鴻 舉	外務·通商에 대한 萬 國通行例를 認定	統機復設	採西思想 (統治機構)	西歐의 制度 部分的 承認
高宗 19년 9월 5일	直 講 朴 淇 鍾	洋教(邪)排斥 洋器(利)利用	洋技採擇農·醫藥 甲兵 등 產業振興	採西·衛正 (東道西器)	利用厚生

年月日	上疏者	內 容	手 段	價 值 觀	備 考
高宗 19년 9월 5일	鴻山幼學 趙 聲 教	西國機械의 學習利用	西技學習 産業振興	採西思想 (東道西器)	國家的 利益에서 의 採西
高宗 19년 9월 14일	出 身 趙 暎 朝	積極의 門戶開放 通商振興	通商富強 産業振興	採西思想 (生産論)	貿易振興·外貨獲 得에 의한 生産擴大
高宗 19년 9월 6일	前 主 事 柳 宗 秀	世界大勢=富強政策 西歐兵器의 優秀性	內資調達軍備 및 生産	採西思想	民族資本에 의한 生産振興
高宗 19년 9월 14일	蔚山幼學 李 敬 權	天下大勢의 一變을 認定 「萬國公法」世界觀	參西를 위한 豫備 및 防禦之策	採西·參西 (西歐世界觀)	西歐的 世界觀承認
高宗 19년 9월 14일	前 司 果 金 魯 昇	世界秩序 } 認定 開港通商 }	財用(富國)政策	參西思想	西歐的 世界觀承認
高宗 19년 9월 15일	副 護 軍 金 兢 鉉	內修政策 外結和好	開化와 義理의 調 和	自存·採西	自存을 위한 積極 外交
高宗 19년 9월 20일	廣州儒生 趙 汶	西歐技術軍制承認 技術學習을 위한 一般 教育	技術導入 國民教育	採西思想	採西의 一般化

\* <表 1>은 1880년 10월부터 1882년 9월까지 滿 2년간에 걸쳐 당시 開化問題에 관련된 上疏文을 정리한 것이다.

\* 거기에 기재된 17篇의 上疏文을 『日省錄』에서 言時事疏만을 뽑아 거기서 다시 斥邪와 採西를 基準으로 抽出한 것이다.

\* 내용은 주로 上疏文에 표현된 文句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意譯으로 설명하였다.

\* 日字는 모두 『日省錄』에 표시된 陰曆日字들이다.

로 참여하기 위한 전제로서 自強意識의 강화가 병행되고 있었다.

여기서 開化價値의 幅은 技術의 도입·습득뿐만이 아니고 근대적인 시설·제도의 확립·실시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개화예의 태도도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일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

高宗 19년9월 京居幼學 高穎聞은 그의 時務上疏에서 다음과 같은 革新的인 제안을 열거하였다.

### ① 積極的 西歐技術의 導入

西歐各國에 使節을 파견하여 그 風物을 살피고 友誼를 伸長시킨 다음, 각 技術에 정통한 教師를 칭하고 全國의 上下人民들에게 새로운 技術을 습득토록 할것.

### ② 새로운 制度 및 施設의 活用

政府機構와는 별개로 公議堂을 新設하여 時務를 잘 아는 人士를 널리 구하여 不次陞用<sup>(6)</sup>으로 政事論議에 참여케 할 것. 또 商業會所와 國立銀行을 설치하여 都下에 經商大賈를 불러들여 便利與否를 잘 의논케 하되 그 損益에 따라 徵稅케 할 것, 海軍을 特設하여 仁川을

(6) '不次陞用'(벼슬의 차례를 밟지 않고 起用함) 그 자체가 선거공무원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서울의 關門으로써 海軍港으로 삼을 것. 巡查制를 실시하되 五家編法으로 五十戶를 一區, 每區에 區長 1人을 선정하고, 그 區長지휘하에 每區 4명의 巡查를 두어 盜賊·水火·酗酒(주정을 피음)의 弊를 방지케 할 것.

### ③ 새로운 法 및 政策의 實施

採鑛·通貨政策을 실시하여 法에 따라 採鑛을 장려하고, 三種 貨幣를 年數制限없이 계속 流通시켜서 貨幣流通을 盛하게 하여 遊食者를 없앨 것, 또 稅法을 改正하여 冗職을 없애 버리고 雜貢은 新式稅法으로 하며, 祿俸은 厚하게 정하되 生路를 널리 열어서 晉紳 士庶로 하여금 각기 그 業에 안정토록 할 것<sup>(7)</sup>

이것은 곧 西歐文化的 積極적 수입을 기반으로 한 進取的 開化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生産과 技術의 문제는 流通財政稅法의 문제로까지 발전하였고, 정치적 採西는 近代議會制의 채택으로까지 발전함으로써 採西의 기반은 制度化 또는 일반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개혁의식의 成長과 병행하여 朝廷에서는 1882년 10월 드디어 서구 汽船의 도입을 공공연히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즉 각국 통상시에는 火輪船이나 帆船이거나를 막론하고 민간인이 이를 구매하여 公私用에 구매됨이 없이 사용토록 舟橋司에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sup>(8)</sup> 이러한 정책과 함께 서구의 火輪船이나 電信線 그리고 大砲 등의 효용을 인정하면서 서구문명의 本質은 오히려 耶蘇教와 같은 枝葉의 인 것이 아니고, 兵器·機械와 같은 工業生産品에 있다고 새로운 서구문명관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高宗 19년 10월 典籍 下鎔은 그의 時務 상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西洋에 대하여) 그 根本은 연구하지 않고 먼저 그 枝葉의 인 것만을 배척하고 있다. 그것은 舊聞을 굳게 지키고 오늘날 通行되는 ‘道’를 究明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洋學에 染色될 것을 두려워 해서 그렇다. 지금 天下에 通用되는 萬國公法조차도 邪學이라고 論斥하지마는, 이들 海國圖志·萬國公法등 書冊은 四都 八道에 刊行하여 퍼뜨릴 것이다. 耶蘇教 그 자체는 嚴禁해야 할 것이로되, 그 밖의 器用의 利나 醫農의 妙는 人道에 해롭지 않고 民産에 有益한 것이니 이를 學習 採用해야 하며, 採金하는 器械등도 모두 海外의 新書들에 揭載되어 있으니 이들은 모두 오늘날 救急의 用이 되는 것이다.<sup>(9)</sup>

라고 주장하여 「朝鮮策略」·「易言」·「萬國公法」은 오늘날 天下에 通用되는 書籍이니 4都와 8道에서 간행하라는 것이다.

그 주장은 어디까지나 서양의 教와 그 器를 區分하여 그 器를 받아들여서는 東道西器的

(7) 「日省錄」, 高宗 19년 9월 22일條(19); 「承政院日記」, 高宗, 19년 壬午 9월 22日條.

(8) 「日省錄」, 高宗 19년 10월 14일條(40).

(9) 「日省錄」, 高宗 19년 10월 7일條(15-16); 「承政院日記」, 高宗 19년 壬午 10월 7日條

採西思想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對西歐觀은 커다란 變轉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서구문명의 本質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종전의 부분적 採西意識은 서구문명의 중심을 그 道라는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東道西器는 西器의 채택 보다는 西學의 排斥이란 측면에서 발전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러 東道西器的 採西思想을 이미 서구문명의 본질이 그 產業能力에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西器를 서구 가치를 설명하는 전체로 승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採西의 의미는 주로 西器의 채택이란 단일한 목적으로 收斂되고 그러한 西器의 採擇은 곧 전반적인 採西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서구는 近代的 物質文明을 가져온 產業化의 本質에서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그 후의 개화의식의 방향을 西歌產業技術의 積極的 採用과 朝鮮朝의 產業能力向上이라는 산업화의 일면으로 촉진시켜 주었다.

그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上疏에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즉 出身 尹善學은 高宗 19年 12월에 올린 상소에서

西法이나오자 그 器械의 情, 富國의 術은 비록 周나라를 일으킨 呂尙, 蜀나라를 다스린 諸葛孔明이 나와도 다시 더불어 놀할 수 없다. 이제 그 輕利한 西法을 이용치 않고 古制의 頑鈍만을 專用한다면 富強할 길이 없을 것이다.<sup>(10)</sup>

라고 주장하여 서양의 技術文明·富國之術은 동양의 傳統으로서 도저히 따르지 못할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것은 곧 西歌의 世界觀을 승인하기 위한 韓國的 '脫亞'意識의 부분적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儒敎的 倫理는 永遠不變의 道理라고 強論하고 있었다. 즉 '君臣·父子·夫婦·朋友·長幼의 倫理는 天賦의 性으로서 天地에 통용되고 壽古에 계승되어 온 不變의 理道이다. 이를 받들어 道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곧 서구문명의 본질을 그 우세한 技術文明에서 파악하는 한편, 우리의 本質을 傳統的 倫理文事에서 지킬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적어도 서구문명의 本質로 인식되는 產業能力을 우리의 적극적 採西로써 배워 갖출 것을 제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西法에 의한 富國強兵思想은 1883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西歐의 秩序에 참여하기 위한 積極的 參西思想으로 發展하였다. 그것은 '萬國公法'을 기반으로 하는 서구적 국제질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개화의식은 아세아적 세계관을 벗어나고 있었다 하겠다.<sup>(11)</sup>

즉, 高宗 20년 3월 前掌令 安翊豐은 그의 상소에서

(10) 日省錄 高宗 19年 12月 22日條(60-61) 承政院日記 高宗(19年 壬午 12月 22日條.

(11) 芳賀登, 「維末明治初期に於ける獨立と自由について一特に西歐觀と對アジア意識を中心にして一」 「東亞細亞近代史研究」 大塚歷史學會編, 1967, pp. 101-105, 여기서 그는 '中國中華觀의 崩壞と 萬國公法'이란 題下에서 설명하고 하다.

…外交에 誠信을 다하고 특별히 才德이 많고 時務에 體達한 사람들을 뽑아 各國에 파견하여 公法대로 條約을 맺게 하고, 年少한 사람 가운데서 聰敏하고 智巧한 사람을 뽑아 異制를 배워 오게 하자<sup>(12)</sup>

고 제의 하였다.

즉 이 단계에 이르러 개화의식은 對外的으로 近代的 國際秩序에 참여하고 대내적으로는 西歐的 制度化를 실천하려는 보다 포괄적인 西歐化의 樣相으로 發展하고 있었다.

이제 다시 1882년 9월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서구적 세계관의 形成過程을 도표로 표시해 보면 <表 2>와 같다.

<表 2>

年月日	上疏者	信念體系	手 段	世界觀	備 考
高宗 19년 9월 22일	京居幼學 高 穎 聞	西歐秩序에 積極 參與 西法採擇	積極外交, 冗官雜 貢廢止, 制度改革, 人材登用	西歐的 世界秩 序 承認	西歐技術文明 道 入으로 富國強兵 추구
高宗 19년 10월 7일	典 籍 卞 透	西歐의 本質을 產 業能力에서 인식	西歐技術에 의한 産業化	萬國公法 世界觀	西歐의 本質을 承 認高宗
高宗 19년 12월 22일	出 身 尹 善 學	富強之道 = 西法採擇	西歐遊學 産業振興	中華的 世界觀 의 포기	西歐 技術文明의 優越을 認定
高宗 20년 3월 11일	前 掌 令 安 翊 豐	西歐秩序에 積極 參與制度的 西歐 化	列國과의 條約 西 歐的 制度化	萬國公法 世界觀	採西의 普遍化

\* 資料는 日省錄에서 拔萃.

\* 日字는 上疏가 登錄된 陰曆日字임.

이상과 같이 서구적 세계관으로까지 발전된 개화의식을 그 개화가치의 幅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그것은 西歐的 秩序를 전적으로 배척하던 全面的 排他意識으로 부터 서구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全面的 採西意識으로까지 긍정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시간적인 분석인 바, 이와 같은 개화의식에 대한 時間的 趣向分析은 곧 개화의식의 확대과정에 대한 단계적 성격 규명을 의미한다. 1880년 말경부터인 1882년 말까지<sup>(13)</sup> 이 시기는 衛正斥邪思想의 반격을 내부적으로 克服하면서 自立的인 國內의 開化政策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成熟하여 간 시기였으며, 이시기에 承政院에 登徹된 상소중 주로 時事疏·時務疏와 같이 개화문제에 직결된 내용으로서 26篇을 추출하였으며, 개화가치의 幅으로서는 改革이나 採西에 대한 주장을 대략 9개의 項目(開化價値)으로 정하여 採西에 대한 주장이 1~3개 항목에 머

(12) 「日省錄」, 高宗 癸未 20년 3월 11일條(16)

(13) 1880년말은 주로 統理機務衙門設定과 연결시키고, 1882年末은 주로 韓美修好條約 체결과 壬午 軍亂이후에 연결시켰다.

무를 때는 保守的 開化(preservative)를, 4~6개 항목일 때는 革新的 開化(innovative)로, 그리고 7~9개 항목일 때는 變革的 開化(transformative)로 규정해 보았다. (14)

그러나 상소문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상 그 採西주장에 대한 用語가 統一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주장의 방향도 多樣하여 개화가치에 대한 精確한 項目抽出이 곤란하기 때문에 개화가치에 대한 反應의 幅을 대략 다음과 같은 3個의 範疇로 再調整하였다.

즉 개화에 대하여 消極的 態度(negative), 개화에 對하여 兩面的 態度(ambivalent), 그리고 개화에 대하여 積極的 態度(positive) 등으로 3분하였다.

소극적 태도는 곧 衛正斥邪가 거기에 해당하고 양면적 태도는 東道西器와 같은 부분적 採西인데, 이 부분적 採西는 技術에 대한 採西와 制度에 대한 採西로 2분 하였다.

여기서 制度에 대한 採西는 技術에 대한 採西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採西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적극적 인 태도는 西歐的 世界秩序에 대한 승인과정으로서, 그것도 ‘萬

〈表 3〉

年 月 日	上 疏 者	消極的 (negative)	兩 面 的 (ambivalent)		積 極 的 (positive)		備 考
			技 術	制 度	萬國公法 世界觀承	西歐優越 承認	
高宗 17년 10월 11일	兵曹正郎 劉元植	○					衛正斥邪
高宗 17년 12월 17일	前正言 許元弼	○					〃
高宗 17년 12월 28일	掌令 李駿善	○					衛正斥邪
高宗 18년 2월 26일	萬人疏 嶺南儒生	○					李晚孫·姜晉奎 등이 대표하여 鎖國·攘夷의 斥邪上疏의 先端을 열다.
高宗 18년 3월 22일	武科及第 洪時中	○					李晚孫·姜晉奎 등이 대표하여 鎖國·攘夷의 斥邪上疏의 先端을 열다.
高宗 18년 3월 22일	出身 黃載顯	○					兵政第 5개 條 등 具體的 富國強兵策 提起
高宗 18년 6월 18일	前掌令 郭基洛		○				東道西器開化 上疏의 先端을 열다. (西法採擇)
高宗 18년 閏7월 8일	江原儒生 洪在鶴	○					衛正斥邪(4道儒生 連署) (伏閣上疏) 國王을 糾彈함
高宗 18년 閏7월 8일	京畿儒生 申樓	○					衛正斥邪(4道儒生 連署) (伏閣上疏)

(14) Ole Pr. Holsti,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Addison wesley company, calif., 1969 참조.



高宗 18년 8월 8일	副護軍友 趙秉友	○				衛正斥邪(內修外攘)
高宗 18년 11월 30일	草莽巨 宋秉璿	○				衛正斥邪
高宗 19년 7월 25일	忠州幼學 金益龍	○				衛正斥邪(關異端)
高宗 19년 9월 3일	禮曹佐郎 江華儒生 李斗永		○			東道西器(西法稍勝)
高宗 19년 9월 5일	刑曹佐郎 康鴻舉			○		東道西器 (統機=萬, 國通行例)
高宗 19년 9월 5일	直講 朴淇鍾		○			東道西器(利用厚生)
高宗 19년 9월 5일	鴻山幼學 趙聲教		○			東道西器(西器=利)
高宗 19년 9월 6일	前主事 柳宗秀		○			東道西器(西器生産·國防)
高宗 19년 9월 14일	出身 趙暎朝			○		東道西器 (貨幣制度, 直接生産)
高宗 19년 9월 14일	前司果 金魯昇				○	參西思想
高宗 19년 9월 14일	蔚山幼學 李敬權				○	'萬國公法' 承認
高宗 19년 9월 15일	副護軍 金競鉉			○		制限的 外交
高宗 19년 9월 20일	廣州儒生 趙汝		○			西技導入의 一般化
高宗 19년 9월 22일	京居幼學 高穎聞			○	○	西歐的 世界 秩序承認 開化書籍刊行 外人技師採用
高宗 19년 10월 7일	典籍 下透		○		○	京道西器, 萬國公法, 承認
高宗 19년 12월 22일	出身 尹善學		○		○	中華世界觀의 崩壞 東道西器, 自主採西
高宗 19년 3월 11일	前掌令 安翊豐			○	○	萬國公法 承認

國公法' 世界觀의 확립과 西歐文明 優越論의 인식으로 양분하였다.

<表 3>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총 26篇의 상소중 開化에 대하여 消極的 態度(negative)

가 11, 兩面的 態度(ambivalent)가 技術8, 制度5 計13, 積極的 態度(positive) 6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적으로 분석해 보면 1882년 9월 이전의 12篇은 소극적 태도 11에 대하여 양면적 태도 1이었던 데 비하여, 동년 9월 이후의 14篇은 양면적 태도 12에 대하여 적극적 태도 6이었다.

이것을 다시 일반적인 추세에서 논한다면, 1882년 9월 전까지만 하여도 개화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가 거의 支配的 이었으나, 그와 같은 소극적 태도는 점차 그 自生的인 發展을 통하여 부분적인 採西로 진행하였고, 그리하여 1882년 9월 이후에는 採西思想이 일반화 되어 갔던 바, 그와 같은 採西思想은 1882년 말기에 이르러서는 부분적인 採西로 부터 적극적인 採西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開化에 대한 意識狀況의 變遷은 적어도 당시 社會 全構成員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그와 같은 意識狀況分析에서 추출된 상소자들의 社會 身分을 一瞥해 봄으로써 開化意識의 문제를 그 政治單位와 다시 연결시켜 보기로 하겠다. 이때 개화에 부정적이던 斥邪論者(11명)들의 사회신분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表 4〉

總 數	現 職 者		前 職 者		出 身	儒 生
	五品 이상	六品 이하	五品 이상	六品 이하		
11	3			1	2	5

\* 出身에는 武科及第도 포함.

\* 儒生에는 幼學도 포함.

한편 採西思想家((15명)들의 사회신분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表 5〉

總 數	現 職 者		前 職 者		出 身	儒 生
	五品 이상	六品 이하	五品 이상	六品 이하		
15	1	4	2	2	2	4

表 4, 5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개화나 척사의식이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사회신분 계층은 없다 하겠다. 다만 척사의식은 在野士林이 보다 큰 비중(55%)을 차지하였음에 반하여, 개화의식은 정책에 관련이 있는 官人들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60%)을 대략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1880년대의 개화의식은 그 政治單位(political unit)와의 상관관계보다는 그 시간적인 경과에 따른 취향분석이 보다 意義있는 일이라 하겠다.

다음 開化意識이 韓末의 民族主義的 自主·獨立思想으로 결합되어 성숙하여간 과정에 관하여 論하고자 한다.

1876년의 修好條約은 西歐的 秩序를 극히 制限的인 의미에서 法律的으로(de jure) 승인한

것이였다. 그러한 수호조약을 서구와의 접촉에 대한 하나의 제도적인 기회로 인정하려 할 때<sup>(15)</sup> 採西를 중심으로 하는 開化의 문제는 부득이 그러한 수호조약을 실천하는 開港體制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구와의 접촉에 대한 최초의 기회로 받아들인 開港의 형식이 서구를 긍정적으로 受容하려는 사실상의 승인이 아니었다는 데서 문제는 제기되고 있었다.<sup>(16)</sup> 여기서 韓民族의 개화과정에는 본래부터 외세의 개입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감안해야만 했었고, 따라서 개화 과정에 따라던 意識의 複雜한 분화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外部的 要素속에서 개화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한 의식의 自生的 展開過程이였다.

즉 서구에 대한 全面的 排斥(外勢의 否定)에서 部分的 採西(開化意識의 自生的擡頭)로, 다시 부분적인 採西에서 적극적인 參西(開化意識의 成熟)로 발전하였던 일련의 擴大的 전개과정은 그와 같은 意識의 自主的인 成長過程을 설명해 주는 일반적 형식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開港體制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改革 내지 採西政策은 단순한 정책의 측면에서만 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성숙해 가는 意識의 成長이 병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화의식의 成長은 대략 在野의 士林들 보다는 官人그룹(現職 또는 前職)에서 더욱 현저하였음은 앞의 도표에서 살펴본 바 있었다. 이와 같이 1880년대 官人 그룹에서 성숙되기 시작한 개화의식이 反抗엘리트의 性格(counter-élite)을 띠고 과감히 動態化 하였던 것이 곧 甲申政變이였다.

그러나 그 甲申政變은 그것을 주동한 反抗엘리트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계층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既存엘리트의 일부에서 그대로 調達되었다는 保守的 性格과, 또 대중의 意識基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중동원의(mass mobilization) 측면이 결여 되었다<sup>(17)</sup>는 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자기세력 침투를 피하는 일본의 세력이 부정적으로 결합되었다는 점 등으로 실패로 돌아 갔다.

물론 政變의 主動勢力 그 자체에 自主意識의 기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sup>(18)</sup> 어쨌든 그 政變失敗의 결과는 개화과정에 있어서 自主의 문제를 제기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衛正斥邪와 같은 개화에 대하여 소극적이던 民族意識에 긍정적 意味를 부여해 준 것으로서, 이와 같은 排他的 感性에 基調를 둔 자주의식의 한 주류는 東學思想의 流布와 함께 배가 되어 갔다.

그와 같은 의식의 주류는 이미 高宗 18년(1881) 영남·호남의 山間에 넘나 들던 火賊들

(15) 李相佰, 「韓國近代化의 基本性格」, 『震檀學報』 23號, 1962, p. 195.

(16) 「日省錄」, 高宗 13년 2월 6일條(19-24), 接見大官申櫛召見條. 匪洋伊修論이 그 대표적 예다.

(17)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ron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8, Chapt. 6 'Mass Mobilization'에 甲申政變은 유의되어 있다.

(18) 朴殷植, 「獨立運動之血史」 서울, 신문사출판부, 1946, 序文 참조.

사이에서도 ‘舉義而代倭’<sup>(19)</sup> 한 檄文으로 나타났었고, 그것은 드디어 1893년 東學教徒의 伸冤運動으로서의 報恩聚會에서 斥倭洋倡義와 같은 정치활동으로까지 전개되었던 것이다.<sup>(20)</sup>

이와 같은 자주의식은 후일 보다 적극적인 개화의식과 결합하여 近代的 民族意識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기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즉 東學軍蜂起當時 淸國援兵을 거절한 領府事 金柄始는

收斂政治에 못이겨 百姓들이 일어난 것을 東學徒들에게 책임을 돌려 무수히 殺傷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나와 여기에 대하여 淸兵까지 請援한 것은 또 하나의 잘못이다. 他國軍隊를 빌려서 吾國 民衆을 害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sup>(21)</sup>

고 주장하여, 同質的 紐帶意識에 기반을 둔 民族意識의 일단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이와 같은 同胞主義는 東學運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였던 全瑛準의 사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었고,<sup>(22)</sup> 그보다 더 먼저는 1870년대 開港을 반대하던 斥和意識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즉 高宗 17년 1월 京畿·江原 兩道儒生들이 올린 絶和疏에는

吾君은 곧 父母의 宗子이고 大臣은 宗子의 家相이며… 이 모두는 곧 同一家의 天倫인 즉 이제 狼狽顛覆의 患을 당하여 어찌 安연히 忘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 위(上)를 덜고 그 아래(下)를 더하여 民生을 기르고 兵食을 다스린다면…그 自強의 勢가 즉히 外侮를 막아낼 수 있다.<sup>(23)</sup>

고 주장하여, 排他斥和의 기반을 민족의식의 일단과 연결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화에 대한 새로운 반성과 自主의 民族意識의 漸高속에서, 그러한 開化와 自主에 대한 兩面的 요구를 실천하려 했던 것이 어쨌든 甲午更張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비록 제한된 官人들의 政策을 통한 維新이었고, 또 그것은 일본이라는 외세의 강박하에 이루어 진것이 사실이었지만 적어도 그 내면을 지배했던 意識狀況에서는 개화 이외에 자주 의 문제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었던 것은 또한 사실이었다. 그것은 更張推進過程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즉 高宗 31년 6월 27일 更張問題를 토의 하기위한 時原任大臣會議에서 古議政 鄭範朝는

…國家曲章을 一朝에 更張한다하니 그것은 반드시 善變한 變후에야 그 效力이 있을 것.

(19) 「日省錄」, 高宗 18년 11월 6일條(10-12).

(20) 韓祐勳,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 『韓國史研究』 Ⅱ, 1968, p. 136.

(21) 「甲午實記」 5월初 9일條

(22) 「東學亂記錄」 下. 甲午 11월, p. 383 ‘全瑛準上書’ 중 ‘告示文’

(23) 「重菴集」 卷 3, 疏 ‘絶和疏’.

이라고 주장하여, 외세에 의한 拙速한 改革에 신중을 표하였고, 領府事 金炳始는

更張이 如何할지 臣은 아직 알지 못하겠으나, 國事가 이와 같이 창망하니 主辱臣死의 義로 다만 痛恨이 切切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여, 更張보다도 外勢의 침입에 의한 國家安危와 自主의 문제를 더욱 절감하고 있었다.<sup>(24)</sup>

한편 그와 같은 자주주의식의 문제는 改革을 추진하던 更張推進過程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즉 高宗 31년 6월 28일 機務處 最初議案에서는 ‘平民參政’과 같은 近代的 政治改革의 내용과 청국과의 條約改定등 列國外交를 제정립하려는 새로운 國際關係의 모색이 들어 있었다.<sup>(25)</sup> 그것은 곧 청국과의 藩屬關係를 自主의 對等關係로 바꾸려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서구적 국제질서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中華의 世界觀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와 같은 中華의 世界觀의 붕괴라 할 수 있는 ‘脫亞’의 意識은 한편으로는 서구적 세계관의 확립과 연결됨으로써 개화의 의미를 지녔고, 또 한편으로는 中國과의 藩屬關係로부터의 主權의 獨立과 연결됨으로써 자주의 意味를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개화과정에 따른 자주주의식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前刑曹參議政池錫永의 상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다.

즉 更張이 바야흐로 추진되어 가던 高宗 31년 7월 그가 올린 特務上疏에서는

…壬辰의 亂으로 당한 유린이 그 얼마이며 丙子의 盟으로 인하여 입은 凌辱이 그 얼마 이기에 自強의 方便과 禦侮의 策略에 미치지도 않고 이렇게 오늘날 外人들의 強勸을 받는데 말인가? 우리 良心에 病이 두가지 있으니 하나는 請國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는 日本을 의심하는 마음이다. 어떻게 그것을 고칠 것인가?… 淸國을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 없고, 日本을 반드시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의심을 돌리면 信心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돌리면 勇心이 생긴다. 信과 勇으로 衆心을 합하면 安邦定國의 쉽기가 손쉬운 것과 같을 것이다.…오늘날 百姓들이 일찌기 바라고자 하는것은 이같은 更張을 당하여 그보다 먼저 백성을 위하여 雪忿의 命을 내리는 일이다.<sup>(26)</sup>

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곧 更張보다도 淸·日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自強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보다더 중요하다는 자주주의식의 발로였던 것이다.

우리는 당시 개화과정에 결부되었던 危機意識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自主自強意識을 다음과 같은 前承旨 申箕善의 상소에서 보다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24) 「日省錄」, 高宗 31년 6월 27일條, 召見時原任大臣條(59-60).

(25) 「日省錄」, 高宗 31년 6월 28일條, 機務處 議案條(70).

(26) 「日省錄」, 高宗 31년 7월 5일條(11-12).

臣이 듣기에 日人이 우리에게 自主를 권하고 우리에게 開化를 가르친다한다. 自主가 어찌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自古로 일찌기 民心이 흩어지고 法紀가 풀어져 國脈이 문란해 가는데 능히 自主하고 開化한 일이 있었는가? 自主를 잘하려면 먼저 自主의 勢를 세우고 그 이름에만 汲汲치 않으며, 開化를 잘하려면 먼저 開化의 實에 힘써 그 形蹟에만 개의치 않는다. 오늘날 異類外兵이 宮闕을 凌犯하고 要地에 據守하여 生死安危가 저들의 掌握下에 있으면서 다만 開國年號만 표방하여 天下에 自高한다고하여 죽히 自主할 수 있겠는가? 안으로는 變怪가 百出하고 밖으로는 妖亂이 滔天하여 八域이 沸騰하고 法紀가 蕩無한데, 다만 官制만 變更하고 官銜만 바꾸어 外國에 모방한다고 하여 죽히 開化할 수 있겠는가? …소위 開化한 것은 公道를 恢張하고 私見을 잘작하여 百姓으로 하여금 游食치 않게 하고 官吏로 하여금 尸位가 되지 않게 하여 또 利用厚生의 資源을 열어 富國強兵의 術을 다하는 것 뿐이다. …요컨대 古來로 外國으로부터 制約을 받으며 능히 나라를 이룬자 없으며, 人心과 衆論을 어기고 本과 漸이 없이 능히 新法을 행한 자 없다. 저들이(일본) 과연 好意에서 나왔다면 우리에게 難行을 감행치 말고 우리의 內政을 간섭치 말 일이다. …民心을 굳게하고 時宜를 참작하여 自主의 勢를 점차 공고히 하여 서서히 開化의 實로 나아갈 일이다. 客으로 하여금 主權을 빼앗지 않도록 한 연후에 우리에게 維新의 效가 있을 것이다. (27)

여기서 개화는 民族의 自強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와 연결되고 그와 같은 自主는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自主權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독립과 이용후생과 같은 한 민족의 自生的 歷史意識과 결합되고 있었다.

그것은 開化가 국내적으로는 自主權의 확립과 국제적으로는 民族國家의 並列的 共存을 이상으로 하는 近代의 民族國家意識으로 지향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한민족의 개화는 외세의 強壓과 침략적 갈등 속에서도 역사의식과 결합된 自主的 民族意識의 성장과정에서 진행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27) 「日省錄」, 高宗 31년 10월 3일條(6-8), 前承旨, 申箕善 疏碑時務條